

제 목	국 문	일부 농촌지역 사망신고자료의 타당성	
	영 문	A validity study on the official mortality register in the rural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남 해 성, 신 준 호, 손 석 준, 최 진 수, 김 병 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Hae Sung Nam, Jun Ho Shin, Seok Joon Sohn, Jin Su Choi, Byong Woo Kim <i>College of Medicine, Chonnam Univ.</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남 해 성(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v)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1 월		

1. 연구 목적

일부 농촌지역 사망신고자료와 실제 조사자료의 사인 일치율 및 사인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사망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보건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지역으로 전라남도의 농촌지역 4개군을 임의 선정하고 각 군당 1개면을 무작위 추출하여 4개면을 선정하였다.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연구지역 면사무소에 신고된 사망자는 419명으로 이중 법원 호적계 및 도 통계담당관실로부터 사망신고자료 획득이 가능하였던 사망자수는 390명이었다. 회상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여 90년 1월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379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망자의 가족을 방문 사망자의 사망장소, 사망진단자, 사망전·후 이용한 의료기관, 사망전 3년간의 질병력, 사망당시 증상 및 증후, 사망원인 등 사망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사망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진료 기록을 조사하였으며 병원자료의 보조자료로서 4개군 지역의료보험자료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379명의 73.4%인 278명을 조사하여 사망신고자료와의 사인 일치율을 구하고 사인구조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로 신고된 자료의 조사상 사인구조를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1) 신고자료와 조사자료의 비교에서 17대분류상 분류질환의 사인순위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사인의 분율은 신생물, 손상 및 중독,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정신장애, 소화기계 질환에서 3%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2) 병원·보험자료와 설문에서 good evidence이상의 사인증거가 있었던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신고자료의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53간이분류, 대분류상 각각 39.2%, 46.0%의 낮은 일치율을 보였고, 병원·보험자료와 비교에서도 53간이분류, 대분류상 각각 41.5%, 48.8%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3)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로 신고한 자료의 조사상 사인분포는 순환기계 질환 32.3%, 신생물 21.2%, 소화기계 질환 7.1%, 손상 및 중독 7.1% 등의 순으로 전체 신고사인의 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 조사자료와 비교시 사망 진단서를 첨부한 사망자료는 53간이분류, 대분류상 각각 89.5%, 94.7%로 높은 일치율을 보인 반면, 인우증명에 의한 경우 각각 35.1%, 40.9%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5) 인우증명에 의한 사망신고자료에서 사망전 3년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경우 조사자료와 37.9%의 일치율을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던 경우 일치율 29.3%에 비해 더 높았다.

4. 고찰

상기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사망통계자료를 이용시 사인의 정확성에 대한 타당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